

# 현시기 해양자원보호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조영남

오늘 수산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을 추켜세우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해양자원을 보호하고 적극 늘여나가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하자원과 산림자원, 해양자원을 비롯한 나라의 귀중한 자원을 보호하고 적극 늘여나가며 나무심기를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려 모든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여야 합니다.》(《신년사》 주체103(2014)년 1월 1일 단행본 10페이지)

현시기 해양자원보호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해양자원에서 기본자원의 하나인 바다수산자원을 적극 보호하는것이다.

수산자원을 적극 보호하는것은 수산물생산원천을 증대시켜 수산업을 전망성있게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이다.

최근시기 세계어업환경은 수산자원의 개발전망의 견지에서 볼 때 날이 갈수록 더욱더 침체화되고있다.

그것은 인구장성에 따라 물고기에 대한 수요가 계속 높아지고있는 가운데 동물성 단백질식품공급이 점차 긴장해지고 현재의 자원이용수준이 수산자원의 재생산능력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물고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발전도상나라들의 투쟁이 점차 강화되고있는것과 관련된다.

그리하여 세계적으로 수산자원쟁탈전이 심화되고있다. 특히 자본주의나라들사이에 주요어장들에서의 물고기잡이를 놓고 갈등이 심해지고있다.

오늘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늘어나는 동물성단백식료품에 대한 수요보장방도를 바다생물자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개발리용하는데서 찾고있다. 따라서 세계수산물생산량은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으며 바다생물자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개발리용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책들이 취해지고있다.

수산자원을 보호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첫째로, 수산자원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을 심화시키는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원에 대한 조사연구는 모든 자원보호에서 첫 공정으로 된다. 특히 수산자원에 대한 조사연구는 그 대상인 물고기의 회유상태와 수산자원상태가 늘 변동된다는 사정과 관련하여 더욱 중요한 문제로 된다.

수산자원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과학적인 조사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수산자원조사방법에는 우선 고기떼의 나이조성에 대한 조사가 있다. 고기떼의 나이조성이란 고기떼를 이루고있는 매 나이급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나이조성은 주로 물고기의 년도별생산량과 매 나이급별 살아남는률에 관계된다.

그러므로 고기떼의 나이조성에 대한 연구는 자원량과 보충량, 어획량 그리고 자원의 감소률과 살아있는 룰 등의 연구에서 필수적인 공정의 하나이다.

수산자원조사방법에는 또한 물고기의 성장과 몸길이조성에 대한 조사가 있다. 몸길이(또는 몸질량)가 커지는 과정을 일반적으로 성장이라고 하며 고기떼를 이루고있는 매 몸길이급이 차지하는 비율을 몸길이조성이라고 한다. 성장과 몸길이조성에 대한 조사연구는 자원량과 보충량, 살아남는 룰과 생산성을 연구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수산자원조사방법에는 또한 알밴수와 알낱이량에 대한 조사가 있다.

알낱이량은 물고기증식량의 중요한 구

성요소의 하나이므로 수산자원보호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밖에도 수산자원의 조사방법에는 먹이와 기름함량에 대한 조사가 있다.

이러한 여러가지 수산자원조사사업을 적용하여 우리 나라 해역에 있는 수산자원을 정확히 장악하는것은 수산자원을 과학적으로 보호하고 그에 맞게 어로활동을 벌려 인민들의 늘어나는 수산물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수산자원을 보호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둘째로, 수산자원의 증식조건을 잘 보장해주는것이다.

우선 수산자원의 확대재생산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유리한 알낱이조건과 새끼고기를 보호하여 성장할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는것이 중요하다.

또한 인공적으로 물고기알을 받아 바다에 놓아주거나 새끼고기를 키워 바다에 놓아주는것이 중요하다.

또한 수산자원증식량과 어획량간에 합리적인 균형을 보장하는것이 중요하다. 만일 이러한 조건을 지어주지 않고 알낱이시기 엄지고기를 다 잡거나 새끼물고기까지 닥치는대로 잡아내기만 한다면 얼마 안가서 수산자원이 고갈되게 된다.

수산자원을 보호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셋째로, 수산자원보호대책을 잘 세우는것이다.

우선 알낱이 및 번식에 대한 보호를 잘하도록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수산자원을 과학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매 어류들의 알낱이시기를 정확히 알고 알낱이조건을 시간적으로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알낱이시기에 알을 낳는 엄지고기들을 잡지 않는것이다. 이와 함께 바다나물에 대한 보호관리를 잘하는것이 중요하다.

또한 새끼고기에 대한 보호를 잘하도록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새끼고기를 보호하는 목적은 새끼들이 자라서 적어도 한번은 번식하여 자기의 후대를 남길수 있도록 하여 증식량을 높이며 엄지때보다 성장속도가 빠른 새끼고기를 자래움으로써 자원의 량을 늘이자는데 있다. 그러므로 새끼고기 특히 정착성어족들의 새끼고기를 잘 보호하여 모두 엄지고기로 자란 다음 알쓸이를 하도록 하는것은 수산자원증식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새끼고기에 대한 보호를 잘하기 위해서는 잡을 물고기의 몸길이를 설정하며 그물코의 크기를 제한하여야 한다.

현시기 해양자원보호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바다오염을 미리막는것이다.

오늘 세계대양의 오염이 지구생태환경 전반을 위협하고 바다수산자원의 서식환경에 부정적영향을 주는 조건에서 바다오염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잘 세우는것은 인류의 미래와 관련되는 절박한 문제로 되고있다.

최근년간 세계적으로 공업이 발전하고 물질적부의 생산이 늘어났지만 반면에 공해현상이 급격히 늘어나고있다. 바다에서도 공해현상은 레외로 되지 않는다.

바다오염의 주되는 오염물질은 각종 공장폐수, 도시하수, 각종 배들에서 내보내는 폐유와 해상사고로 발생하는 기름의 류출, 기타 폐기물들이며 여기서 기본은 기름이다.

바다오염을 방지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우선 근로자들속에서 바다자원과 환경보호를 위한 교양사업을 정상적으로 하는것이다.

근로자들속에서 바다오염을 막기 위한 교양사업을 사회적으로 강화하여 그들이 생산과 생활과정에 나오는 오염물과 폐기물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한 사업에 적극 동원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다오염을 방지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해안공업지구와 항구도시들에서 바다

와 연안들에 배출되는 각종 폐기물과 오염물의 절대량을 줄이며 그것을 정화처리한 다음 배출하도록 하는것이다.

해안공업지구와 항구도시들의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기술관리를 개선하고 오염물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심화시키며 일단 배출된 산업폐기물과 생활오수에 대해서는 분류, 정화공정을 거쳐 오염성분과 독성분을 허용기준이하로 낮추거나 무해화한 다음 내보내도록 하여야 한다.

바다오염을 방지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바다오염감시사업을 발전시켜 해상과 강하천류역에서 오염발생원천과 오염위험구역 및 오염구역을 제때에 발견하고 오염을 예방하는것이다.

오염감시를 위해서는 해당 감독통제기관들에서 항구에 출입하는 선박들을 조사통제하는것과 함께 필요한 자재들과 수단들을 동원리용하여 해상과 강하천, 연안수역에 정기 및 비정기감시점들을 설정하고 오염물질들을 조사하여야 한다.

바다오염을 방지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오염된 해역에 대한 정화와 오염해역의 확대방지대책을 제때에 세우는것이다.

여러가지 능률적인 정화기계들과 합리적인 정화방법들을 도입하여 빠른 시일안에 정화작업을 진행하여 오염된 해역을 원상대로 회복시켜야 한다.

현시기 해양자원보호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해양광물자원의 개발을 환경보호의 원칙에서 진행하는것이다.

해양광물자원을 개발리용하는것은 인민경제발전의 전망적요구에 맞게 원료, 동력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해양광물자원이란 바다밑바닥에 깔려있거나 바다밑 기반암에 묻혀있는 개발가능한 광물을 말한다.

해양광물자원의 개발력사는 오래지 않다. 19세기이전까지 사람들은 대양과 바다

를 주로 해상운수의 통로나 수산자원을 획득하는 원천으로 리용하였다. 그러나 19세기초 처음으로 바다밑의 석탄을 채굴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바다에서의 고심도시추의 성공과 음향탐사법의 도입으로 세계대양의 깊은 바다의 지질구성해명과 유용광물에 대한 탐사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진행되였다. 특히 1968년에 처음으로 진행한 깊은 바다에 대한 시추는 대양바닥의 지질구성을 알아내고 유용광물을 찾아내는데서 결정적전환점으로 되였다.

현재 세계적으로 40여개 나라들에서 20여종의 표사광물에 대한 탐사와 개발을 진행하고있다.

해저광물자원의 탐사와 개발실태를 보면 현재의 기술로는 얕은 해역의 표사광상, 바다바닥에 있는 원유와 천연가스광상 및 대양바닥기반암에 있는 고체광상의 채광이 진행되고있다.

그러나 앞으로 기술이 개발되는데 따라 종래의 영역으로부터 보다 채취하기 어려운 영역에까지 확대할수 있다. 특히 해역에 있는 해저표층광상, 망간단괴를 대상으로 채광도 할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사업이 진행되고있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해양광물개발을 철저히 주위환경을 보호하는 원칙에서 진행하는것이다. 특히 대륙붕광물자원과 해안표사광물자원개발에서 주위환경을 파괴하지 않도록 하며 불가피하게 오염되는 경우에는 제때에 오염원을 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 서해의 모든 지역, 동해의 일부 지역을 포괄하는 넓은 지역이 대륙붕을 이루고있으며 여기에는 여러가지 유용광물자원이 많이 매장되어있다.

해안표사광물이란 바다밑의 땅결면의 흙, 모래, 자갈속에 섞여있는 광물을 말한다.

해안표사광물자원의 탐사와 개발은 해양

---

광물자원개발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있다. 그것은 표사광물자원의 개발이 쉽고 경제적으로 효과성이 높을뿐아니라 광석의 분해와 복잡한 가공처리공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선광공정이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이다. 또한 유해성분이 적고 순도가 높으며 채굴후에도 계속 표사광물자원이 자연적으로 보충되기때문이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현시기 해양자원의 보호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잘 알고 해양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그리하여 승리에 대한 신심드높이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가야 한다.